

‘청년기본소득’, 누가 지지하는가?

- 19~64세 성인 인구 중 약 32.5%가 청년기본소득 도입에 찬성, 반대 의견은 51.7%, 모르겠다는 응답이 15.7%로 나타났다.
- 남성(34.0%)이 여성(31.0%)에 비해 찬성 비율이 높으며, 청년층(19~34세)이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반면 (40.0%), 핵심 연령(35~50세) 집단은 지지 비율(25.5%)이 가장 낮았음.
- 저소득 가구(가구소득 월 300만원 이하)의 34.5%, 일용직 42.2%, 임시직 39%, 고졸 이하 저학력 집단(35.8%) 등 노동시장 취약 집단이 상대적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더 지지하고 있음.
- 이러한 결과는 향후 복지정책 및 사회보장 개편 논의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소득 보장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함.

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

| 최근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 19 등 감염병 대유행으로 일자리 위기와 사회보장 재편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고 있음.

- 본 연구에서는 연구진이 청년기본소득의 개념과 목적을 제시하고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설문 응답자의 인식을 파악함.
- 기본소득의 핵심 요건은 보편성, 개별성, 무조건성, 현금성, 정기성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보편성과 무조건성, 개별성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 할 수 있음.
- 청년기본소득은 지급 대상이 청년층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준보편성을 띠지만, 구직 및 사회활동 참여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무조건성을, 현금성 소득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현금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음. 또한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점에서 개인성을 충족시키는 제도로 할 수 있음.

| 분석 자료: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‘새로운 사회 위험 및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조사’(2020년)

-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성인 인구(19~64세)를 대상으로 새로운 사회 위험¹⁾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이 포함됨.
- 2020년 7월 주민등록표 기준 19~64세 성인인구를 모집단으로 1,500명의 표본을 성별(2개 집단)*연령집단(19~34세/35~50세/51~64세, 3개 집단) 6개 집단별로 인구비례 배분 할당 표집하여 조사함.
-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항을 제시하여 응답자의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을 파악함.

‘최근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으로 청년세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청년기본소득은 국가가 19~34세의 청년 개인에게 ‘일정한 금액의 현금성 소득’을 ‘아무런 조건 없이’ ‘정기적’으로 지급하는 사회정책입니다.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행복 추구, 삶의 질 향상,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.’

귀하는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1) 찬성한다 2) 반대한다 3) 모르겠다.

각주

- 1) 새로운 사회 위험(New Social Risks)이란 사회-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사회 구성원이 직면하게 되는 위험을 의미한다. 산업 재해를 포함한 신체적·물리적 위험과는 다르며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위험을 뜻한다. 구체적으로 서비스 산업의 증가 또는 디지털화 등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실업 및 일자리 대체 위험 증가, 저출산·고령화 등 가족 구조의 변화에 따른 일생 활균형 확보 문제,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증가 등을 포함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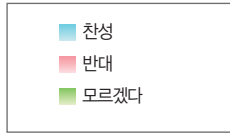


02 주요 분석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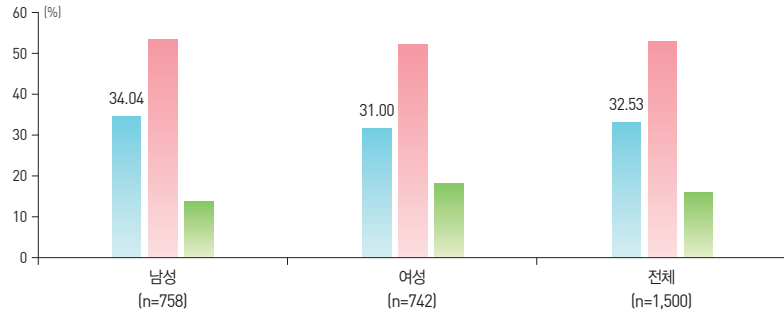
- 전체 응답자의 32.5%가 청년기본소득에 찬성, 반대는 52.4%,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약 13.6%로 나타남.

성별

- 남성은 평균 34.0%가 청년기본소득에 찬성하는 반면, 여성은 찬성 비율이 31.0%로 약간 낮은 것으로 확인됨.



주
성별 집단별 응답 분포 차이는 95%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(Pearson $\chi^2(2)=5.6676$, $Pr=0.059$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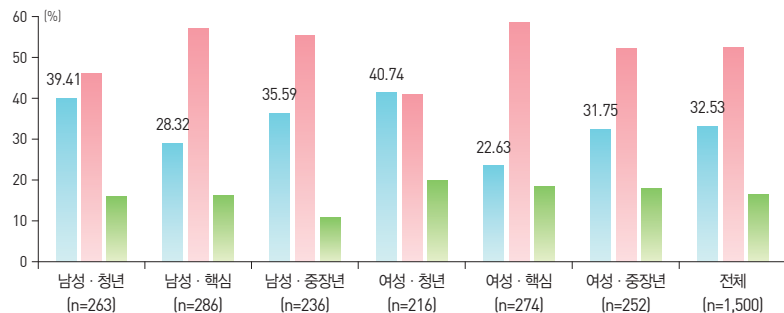


성별-연령집단별

- 성별-연령집단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의견은 상당한 차이가 발견됨.
- 전반적으로 남녀 모두 청년층(19-34세)에서 찬성 비율이 가장 높음. 남성 청년층의 39.4%, 여성 청년층의 40.7%가 청년기본소득에 찬성하였으며, 반대 의견은 각각 45.3%, 40.3%로 나타났다.
- 핵심 연령집단(35-50세)에서는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찬성 비율이 가장 낮아 남성의 경우 28.3%, 여성은 22.6% 만이 찬성 의사를 나타냈으며, 반대 의견은 각각 56.3%와 59.5%로 확인됨.
- 중장년 집단(51-64세)은 청년집단에 비해서는 찬성 비율이 낮지만 핵심연령대에 비해서는 찬성 의견이 높음. 남성의 경우 약 35.6%, 여성은 31.8%가 청년기본소득에 찬성함. 성별-연령집단 6개 집단의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의견은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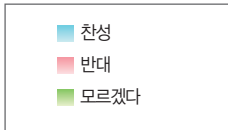


주
성별-연령 집단별 응답 분포 차이는 95%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(Pearson $\chi^2(10)=38.50$, $Pr=0.000$)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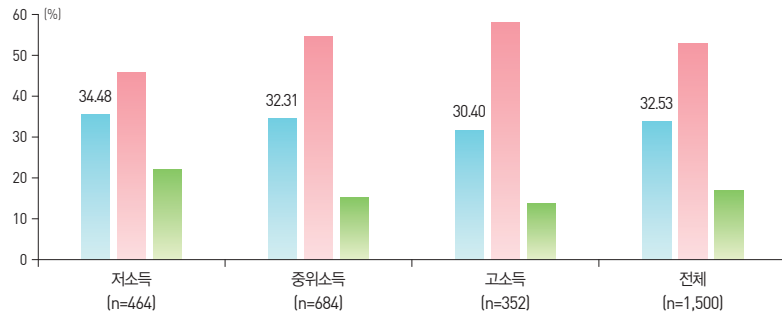
가구 소득수준별

- 응답자의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은 저소득 가구로, 300만원 이상 ~ 600만원 미만은 중위소득 가구로, 600만원 이상은 고소득 가구로 구분함.
-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은 상당한 차이가 드러났는데, 저소득 가구는 약 34.5%가 청년기본소득에 찬성한 반면, 중위소득 가구는 32.3%, 고소득 가구는 30.4%만이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됨. 또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반대 의견은 고소득이 가장 많았으며 중위소득, 저소득에서는 반대 의견이 다소 낮았음. 저소득 가구의 경우 청년기본소득에 대하여 모르겠다는 응답을 한 경우가 약 20.9%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, 고소득 가구는 약 12.5%만이 유보적인 입장을 표시하였음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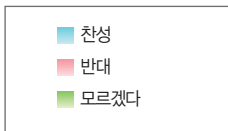
| 주 |

가구 소득수준 집단별 응답 분포 차이는 95%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(Pearson $\chi^2(4)=19.8274$, $Pr=0.001$)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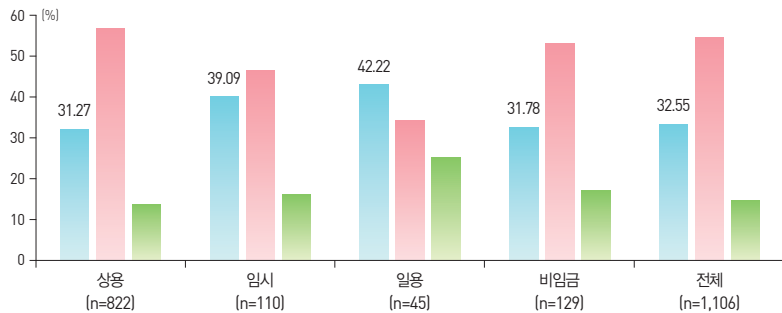
| 종사상 지위별

- 노동시장 지위에 따라서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은 상당한 차이가 발견되었음. 상용직은 찬성한다는 응답이 약 31.3%에 불과한 반면, 임시직은 39.1%, 일용직은 42.2%가 청년기본소득에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냄. 반면 비임금 근로자는 찬성 입장이 약 31.8%로 상대적으로 낮았음.
- 일용직의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에 대하여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24.4%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, 상용직의 경우에는 약 13.0%만이 모르겠다고 응답함.



| 주 |

종사상 지위 집단별 응답 분포 차이는 95%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(Pearson $\chi^2(6)=13.4315$, $Pr=0.037$)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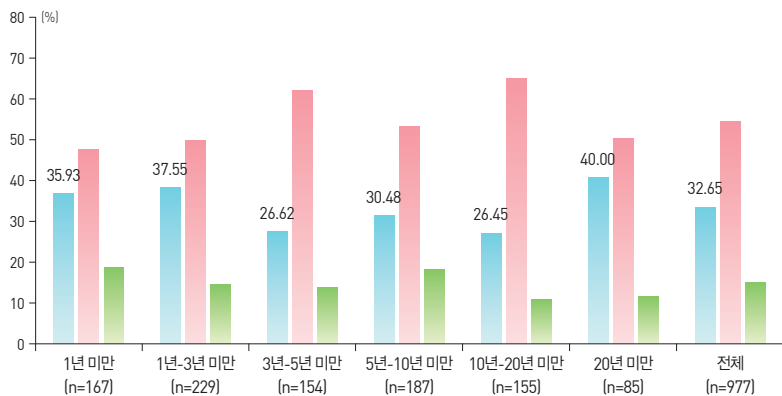
| 근속연수별

- 현직장에서의 근속연수에 따라서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두드러짐.
- 근속연수가 20년 이상인 집단에서는 찬성 비율이 40.0%로 매우 높았으며, 1년 미만, 1년-3년 미만인 단기 근속자 집단에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찬성 비율이 약 35.9%, 37.6%로 다른 집단에 비해 낮았음.
- 반면, 3년-5년 미만이거나 10년-20년 미만 근속집단은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각각 26.6%, 26.5%로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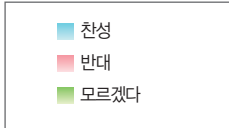
| 주 |

근속연수 집단별 응답 분포 차이는 95%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(Pearson $\chi^2(10)=20.6591$, $Pr=0.024$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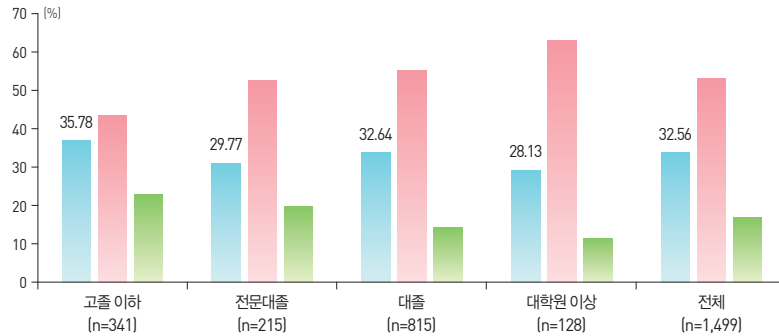


| 교육수준별

- 교육수준별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발견되었음.
- 고졸 이하 집단은 약 35.8%가 청년기본소득에 찬성하였으며 대졸자 집단도 32.6%가 청년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남. 반면, 전문대졸 집단은 29.8%, 대학원 이상 집단은 약 28.1%만이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찬성 입장을 드러내고 있음. 대졸이나 대학원 이상 고학력자 집단은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반대 의견도 각각 54.2%, 61.7%로 다른 학력 집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.



| 주 |
교육수준 집단별 응답 분포 차이는 95%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(Pearson $\chi^2(6)=27.4936$, $Pr=0.000$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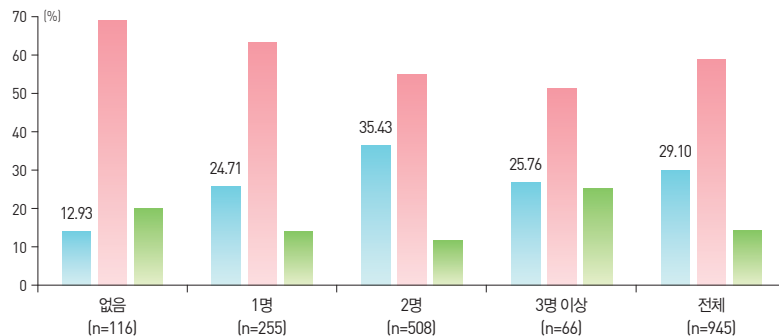


| 자녀 수별

- 기혼자 집단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입장도 다름.
- 자녀가 2명인 경우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약 35.4%로 가장 높았으며, 3명 이상인 경우가 25.8%, 1명인 경우 24.7%가 지지 의사를 밝혔음. 반면, 자녀가 없는 경우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지지 비율이 약 12.9%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음.



| 주 |
기혼자의 자녀 수 집단별 응답 분포 차이는 95%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(Pearson $\chi^2(6)=35.9763$, $Pr=0.000$).



03 결론 및 시사점

- 본 연구의 분석 결과, 청년기본소득에 대하여 남성이 여성에 비해 찬성 비율이 약간 높으며, 청년층이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한 반면, 핵심연령 집단에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지지 비율이 가장 낮았음.
- 저소득 가구가 청년기본소득을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,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반대하는 입장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됨.
- 일용직과 임시직, 저학력 집단에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지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, 상용직과 비임금 근로, 고학력 집단(대졸 이상)에서는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지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음.
- 성별-세대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이 매우 상이한데, 이는 복지정책의 효과에 대한 체감 정도와 재원 부담에 대한 견해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간주됨.
- 이러한 결과는 향후 복지정책 및 사회보장 개편 논의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소득 보장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함.

류 기 략 (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)